



#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전 나 미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Effec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on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utonomy

Chun, Nami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on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utonomy. **Methods:** The integrative 5-week (15 hour) sexual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control and coping aspects of sexual autonomy was developed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59 female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n=29) and the control group (n=30). Students completed the sexual knowledge and the sexual autonomy questionnaires at prior to the program, right after and 10 week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Independent t-test were use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Results:**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on sexual autonomy score right after and 10week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No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on sexual knowledge at any time after the program completion.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5-week Sexual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autonomy. Nursing professors majoring women's health nursing may contribute to improving college students' sexual autonomy by opening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as a general elective curriculum. Strategies to improve sexual knowledge need to be considered for better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Key Words:** Sexual, Program, Knowledge, Autonom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 건강은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으로 정의한다. 이는 성과 성적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함과 동시에 즐겁고 안전한 성경험, 강압, 차별, 폭력이 없는 성

을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에게 있어 성 정체성, 친밀감, 자율성은 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Zimmer-Gembeck & Helfand, 2008). 이 가운데 성적 자율성은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 또는 최적의 능력을 말한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에게 성교

**주요어:** 성교육 프로그램, 성지식, 성적 자율성

**Corresponding author:** Chun, Nami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onjung Green Campus, 55, 76 Ga-gil, Dobong-ro, Gangbuk-gu, Seoul 142-732, Korea.  
Tel: +82-2-920-7523, Fax: +82-2-920-2092, E-mail: nmchun@sungshin.ac.kr

- 본 연구는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0.

투고일: 2012년 4월 18일 / 수정일: 2012년 5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1일

육 프로그램은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외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Barber & Schluterman, 2008; Ryan & Deci, 2000; Soenens et al., 2007). 성적 관계의 맥락에서 성적자율성은 성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와 조절을 의미하며(Parkes, Henderson, Wight, & Nixon, 2011). 이는 청소년이나 초기 성년의 질적인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Ott, Millstein, Ofner, & Halpern-Felsher, 2006; Wight et al., 2008).

그러나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여대생들은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서 자칫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하게 됨으로써 낙태, 미혼모, 성병 등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당면하게 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혼여성의 임신중절률은 31.6(해당 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비율)으로 기혼여성 28.6보다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상자 중 21~25세가 45.8%, 16~20세가 31.5%, 26~30세가 14.3%로 20대 초반의 미혼모가 가장 많았고, 17.7%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미혼모의 임신 사유를 보면 교제 중 원치 않게 임신한 경우가 66.0%이고, 피임에 실패한 경우가 16.0%이었다. 그러나 임신 후 미혼부와 관계가 지속적임을 보이는 경우는 25.0% 정도에 불과하여 이는 미혼부들이 이성교제 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주로 미혼모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또한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AIDS 신규감염자는 773명으로 1985년 첫 감염자 발견 이래 감염자수가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자의 19.4%가 대학생 해당 연령군인 20대이며 감염 여성의 100%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다(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0).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초·중·고 학교 중심의 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육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임, 성폭력이나 성병 및 에이즈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50~60점대로 낮았고(Jeon, Lee, & Rhee, 2004) 대학생의 80%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Lee, Jeon, Kim, & Jung, 2000).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7.5%가 성교육 경험이 있지만 그동안 받은 성교육이 피상적이고 지루하며, 요구와 동떨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재가 부실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학생은 교육을 통하여 피임, 임신, 성기 위생 및 건강, 성병과 에이즈, 임신과 출산 등의 생리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뿐 아니라, 태도 및 가치관, 이성교제 관련 정보, 성폭력, 성윤리, 사랑의 의미와 책임,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책임 등의 성 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Ha, 2004; Hur et al., 2007).

대학생들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 2에 의거하여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만(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8) 이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일회성의 교육에 불과하므로 여대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게 하기에는 적절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성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과 내용의 적절성과 교육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없고, 일부 수행된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지식이나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Jeon et al., 2004; Shin, Chun, Cho, & Cho, 2005).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여대생의 성지식 및 성적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 실시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적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3. 연구가설

가설 1.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여대생은 참석하지 않은 여대생과 비교하여 성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여대생은 참석하지 않은 여대생과 비교하여 성적자율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차이 비교 실험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설계에 관한 모식도는 Figure 1과 같다.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서울시내 일개 4년제 여자대학교 학생 중 교양강좌인 ‘인간과 건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실험군은 ‘인간과 건강’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40명에게 공개 모집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2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동일한 시기에 다른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모집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Shin 등(2005)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유사한 도구로 성적자율성을 측정된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간에 성적 자율성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평균 0.37, 표준편차 0.10점으로 예상되는 효과크기가 3.7 (0.37/0.10)로 높게 나와, 본 연구에서는 높은 효과크기 .80, 검정력 .80, 양측검정 유의수준  $\alpha = .05$  수준으로 조건을 설정하여 G\*Power 3.0.10에서 t-test를 위한 각 군별 최소 표본의 수 26명에서 탈락률을 고려한 59명(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승인번호: sswuirb 2011-018)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 내용,

연구 목적, 연구자료 분석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 및 연구 참여 중도 포기 가능성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 4. 연구도구

#### 1) 대상자의 특성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학년, 전공 계열, 부모동거여부, 종교, 형제, 형제자매 순위, 부모교육 수준을 포함하였다.

#### 2) 성지식 도구

성지식 도구는 Whang (2009)이 개발한 것으로 성 생리 10문항, 성 건강 10문항, 피임 10문항, 성폭력 및 성역할 관련 내용 10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성적 자율성 도구

성적 자율성 도구는 Chang (2002)이 개발한 후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한 것으로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Whang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5. 연구절차

#### 1) 프로그램 구성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Ryan과 Deci (2000)의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 후 실험군을 대상으로 총 15시간 동안 제공하였다. Ryan과 Deci (2000)는 자기결정이론을 통하여 자기결정은 자신감, 자기조절, 가치부여,

Groups	Pretest (T1)	Intervention	Posttest 1 (T2)	Posttest 2 (T3)
Exp.	Ye <sub>1</sub>	X	Ye <sub>2</sub>	Ye <sub>3</sub>
Cont.	Yc <sub>1</sub>		Yc <sub>2</sub>	Yc <sub>3</sub>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Ye<sub>1</sub>=experimental group pre-test; Ye<sub>2</sub>=experimental group post-test right after completion of intervention; Ye<sub>3</sub>=experimental group post-test 10 weeks after completion of intervention; Yc<sub>1</sub>=control group pre-test; Yc<sub>2</sub>=control group post-test at the same period as Ye<sub>2</sub>; Yc<sub>3</sub>=control group post-test at the same period passed as Ye<sub>3</sub>; X=5 weeks sexual education program,

Figure 1. Research design.

일체감이나 인식 등의 외적 동기화 과정을 통하여 내적 동기화 즉, 내적 조절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며, 이때 자율성은 외적 동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프로그램은 Chang (2002)에 의한 성적 자율성 두 가지 측면인 조절 능력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구성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개념적 틀은 Figure 2와 같다.

조절능력으로 피임, 임신 및 성병 예방, 성교 여부 결정, 원하지 않는 성교 거절, 성욕구 조절, 성관계로 성파트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려, 성폭력 대응, 성과 관련된 양성평등 의사 표현, 성교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 등을 포함하고 대응능력으로 임신 및 유산, 성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의 횟수 및 기간은 교과과정에 따라 주 2회, 1시간 30분씩 5주간(5차수) 총 10회 15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매 차수마다 조별 토론 및 발표 시간을 포함하였고 발표를 맡은 조원들에게는 미리 주제를 알려주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다. 실험군에게는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지식, 성적 자율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5주간의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종료 후 10주 시점에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대조군에게도 실험군과 동일한 시점에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다. 종속변수의 등분산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하였고, 실험군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정은  $x^2$  또는 t-test하였다. 2\*3 이상의 교차분석에서 25% 이상의 셀이 5보다 작은 빈도를 가지는 경우는 Fisher's Exact test로 정확한 검정을 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성적 자율성의 차이는 t-test로 검정하였다. 사전 분석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동질하지 않은 성지식에 대하여는 사전 성지식을 공변량으로 하여 보정한 ANCOVA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하였다.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실험군이 20.31세, 대조군이 21.30세였고, 학년은 실험군 16명(55.2%), 대조군 15명(50.0%)가 1학년으로 제일 많았다. 실험군 12명(41.4%), 대조군 14명(46.7%)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었고, 실험군 22명(75.7%), 대조군 20명(36.7%)가 부모와 동거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실험군 13명(44.8%), 대조군 16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는 실험군 10명(34.5%), 대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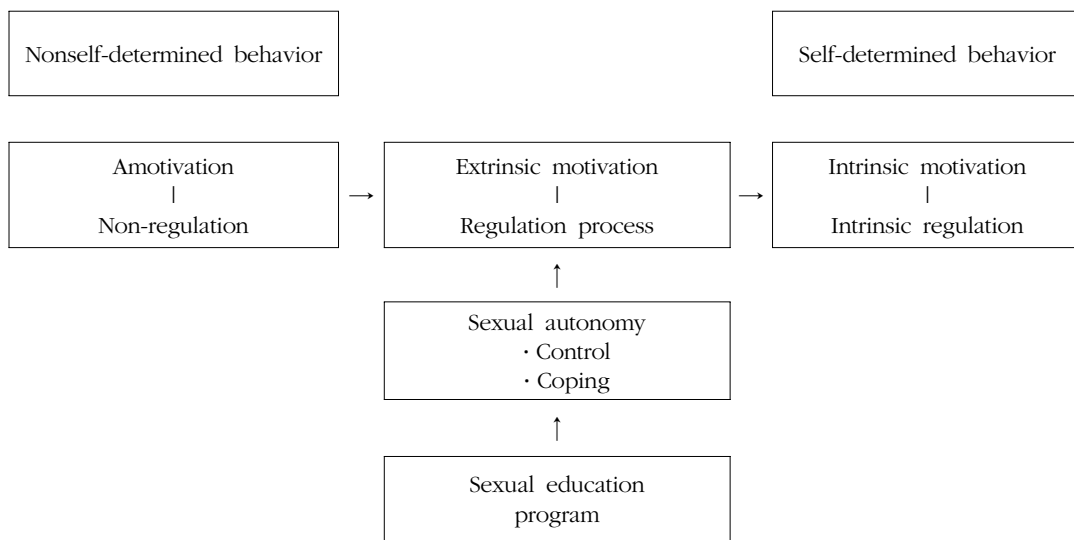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sexual education program.

**Table 1.** Program Outline

Week (session)	Topic	Content outline	Discussion topic
1st week (1, 2)	Program overview	· Introduction · Fill out pre-questionnaires	Loving my body & my life
	Ice break	· Self introduction	
	Health and person	· Definition and concept of health · Wellbeing · Statistical analysis of Women's life	
2nd week (3, 4)	Women and sexual health	· Structure of reproductive system · Contraceptives · Abortion	Women and sex reflected in the media
3rd week (5, 6)	Pregnancy and health	· Physiology of pregnancy · Fetal development	Desirable contraceptive choice
4th week (7, 8)	Labor, delivery and health	· Miracle of life · Labor and delivery	Sexual equality
5th week (9, 10)	Women's reproductive health	· STDs · Reproductive health for women college student · Sexual autonomy	Strategies to improve sexual autonomy
	Wrap up	· Fill out post-questionnaires	

8명(26.7%)가 자매만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험군 14명(48.3%), 대조군 14명(46.7%)이 장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실험군 16명(55.2%), 대조군 18명(60.0%)가 고졸 이하이고, 어머니는 실험군 10명(69.0%), 대조군 20명(66.7%)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비교

대상자의 성교육 프로그램 전 성지식은 실험군이  $32.72 \pm 2.28$ , 대조군이  $33.93 \pm 2.27$ 로 두 군 간에 동질하지 않았다( $p=.046$ ). 성교육 프로그램 전 성적 자율성은 실험군이  $51.21 \pm 6.90$ , 대조군이  $53.73 \pm 4.88$ 로 두 군 간에 동질하였다( $p=.112$ )(Table 2).

## 3. 여대성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가설검증

### 1) 가설 1

성지식 사전 점수에서 실험군 대조군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전 성지식을 공변량으로 한 ANCOVA 분석을 하였다. 집단과 프로그램 전 성지식 간의 상호작용(T1-T2:  $F=0.22$ ,  $p=.640$ ; T2-T3:  $F=3.63$ ,  $p=.062$ ; T1-T3:  $F=1.71$ ,  $p=.197$ )과 프로그램 전 성지식이 프로그램 후 시점별 성지식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T1-T2:  $F=19.84$ ,  $p<.001$ ; T2-T3:  $F=0.13$ ,  $p=.72$ ; T1-T3:  $F=15.73$ ,  $p<.001$ )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조군 간의 사전(T1), 프로그램 종료 직후(T2)의 성지식 전후 차이(T1-T2)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0.56$ ,  $p=.456$ ). 실험군 대조군 간의 프로그램 종료 직후(T2), 프로그램 종료 10주 후(T3)의 성지식 전후 차이(T2-T3)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0.17$ ,  $p=.684$ ). 실험군 대조군 간의 사전(T1), 프로그램 종료 10주 후(T3)의 성지식 전후 차이(T1-T3)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0.06$ ,  $p=.803$ ).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Table 3).

### 2) 가설 2

실험군 대조군 간의 사전(T1), 프로그램 종료 직후(T2)의 성적 자율성 전후 차이(T1-T2)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49$ ,  $p=.016$ ). 실험군 대조군 간의 프로그램 종료 직후(T2), 프로그램 종료 10주 후(T3)의 성적 자율성 전후 차이(T2-T3)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0.15$ ,  $p=.883$ ). 실험군 대조군 간의 사전(T1), 프로그램 종료 10주 후(T3)의 성적 자율성 전후 차이(T1-T3)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9$ ,  $p=.012$ ).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9)	Cont. (n=30)	$\chi^2$ or t or F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31±2.24	21.30±2.35	-1.66	.103
College	1st year	16 (55.2)	15 (50.0)	1.07 <sup>†</sup>	.805
	2nd year	5 (17.2)	5 (16.7)		
	3rd year	4 (13.8)	7 (23.3)		
	4th year	4 (13.8)	3 (10.0)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12 (41.4)	14 (46.7)	2.39 <sup>†</sup>	.756
	Engineering & natural science	8 (27.6)	7 (23.3)		
	Health	2 (6.9)	0 (0.0)		
	Art & sports	6 (20.7)	7 (23.3)		
	Other area	1 (3.4)	2 (6.7)		
Type of living	Living with parents	22 (75.9)	20 (66.7)	0.61	.436
	Living away from parents	7 (24.1)	10 (33.3)		
Religion	Protestant	9 (31.0)	7 (23.3)	0.95	.846
	Catholic	4 (13.8)	3 (10.0)		
	Buddhist	3 (10.3)	4 (13.3)		
	None	13 (44.8)	16 (53.3)		
Siblings	Sister only	10 (34.5)	8 (26.7)	2.54	.469
	Brother only	8 (27.6)	12 (40.0)		
	Sister and brother	10 (34.5)	7 (23.3)		
	Only daughter	1 (3.4)	3 (10.0)		
Birth order	Oldest	14 (48.3)	14 (46.7)	1.32 <sup>†</sup>	.792
	Middle	4 (13.8)	5 (16.7)		
	Youngest	10 (34.5)	8 (26.7)		
	Only daughter	1 (3.4)	3 (10.0)		
Father's level of education	< College	16 (55.2)	18 (60.0)	0.14	.708
	≥ College	13 (44.8)	12 (40.0)		
Mother's level of education	< College	20 (69.0)	20 (66.7)	0.04	.850
	≥ College	9 (31.0)	10 (33.3)		
Sexual knowledge		32.72±2.28	33.93±2.27	-2.04	.046
Sexual autonomy		51.21±6.90	53.73±4.88	-1.62	.1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up>†</sup> Fisher's exact test.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ver Time (N=59)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2	Posttest 3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1)	(T2)	(T3)	T1-T2		T2-T3		T1-T3	
		M±SD	M±SD	M±SD	adj. M (SE)	F (p)	adj. M (SE)	F (p)	adj. M (SE)	F (p)
Sexual knowledge	Exp. (n=29)	32.72±2.28	33.21±2.69	33.66±3.11	0.39 (0.52)	0.56 <sup>†</sup> (.456)	-0.23 (0.57)	0.17 <sup>†</sup> (.684)	0.16 (0.64)	0.06 <sup>†</sup> (.803)
	Cont. (n=30)	33.93±2.27	34.20±1.65	34.37±1.94						
Sexual autonomy	Exp. (n=29)	51.21±6.90	53.97±6.88	54.14±6.21	-3.49 (1.40)	-2.49 (.016)	0.19 (1.31)	0.15 (.883)	-3.30 (1.27)	-2.59 (.012)
	Cont. (n=30)	53.73±4.88	53.00±3.79	53.37±5.2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adj. M=adjusted Mean.

<sup>†</sup> ANCOVA analysis after adjusting pre-test sexual knowledge as a covariate.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5주간 총 15시간 동안 제공한 후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여대생은 참석하지 않은 여대생에 비해 프로그램 종료 후와 종료 후 10주 시점에 성적자율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성지식은 프로그램 종료 후와 종료 후 10주 시점에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장에서는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 및 성지식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 대조군 간의 사전, 프로그램 종료 직후, 종료 후 10주 후에 성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녀대학생 41명을 대상으로 4주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 참석 학생의 성병관련 지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Shin 등(2005)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성지식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한 Jeon 등(2004)이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물론 Shin 등(2005)의 연구에서는 성지식을 성병관련 지식으로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프로그램 전 성지식은 실험군이 81.8 (100점 만점 환산 점수), 대조군이 84.8로 Shin 등(2005)이나 Jeon 등(2004)의 대상자의 중재 전 성지식 점수 70점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점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의 프로그램 전에 이미 높은 성지식을 가지고 있어 프로그램 후에도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퀴즈나 과제물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적 자율성은 실험군 대조군 간에 차이가 있어 성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 시점과 종료 후 10주가 경과한 기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프로그램 시행 전 성적 자율성은 실험군 51.21, 대조군 53.73으로 Chang (2002)이 성적 자율성 도구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 시내 일개 대학 여대생의 성적자율성 점수인 56.42점 보다 낮은 점수이나, Shin 등(2005)의 52.78점과는 유사한 점수이다. Chang (2002)의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한 시기는 1999년으로 지금보다 미디어나 인터넷이 덜 발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더 높았던 것은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여대생의 성적 가치관이나 자기 결정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현대대의 여대생은 1999년대의 여대생에 비해 성적 의사결정이 좀 더 자유롭고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성적 자율성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청소년 시기의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종료 후 10주가 지난 학기말까지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hang (2002)이 도구를 개발할 당시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대생이 교육 후 인지하는 자신의 교육전의 성적 자율성과 교육 후의 성적 자율성 비교에서 교육 후의 성적 자율성을 높게 인지하였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Chang (2002)의 결과는 여대생에의 성적 자율성을 교육 전에 파악하지 않고 교육 후에 교육 전의 자율성 정도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기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Shin 등(2005)이 남·녀대학생을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 성교육 후에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Shin 등(2005)의 경우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Ryan과 Deci (2000)의 자기결정이론을 근간으로 구성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기결정은 자신감, 자기 조절, 가치부여, 일체감이나 인식 등의 외적 동기화 과정을 통하여 내적 동기화 즉, 내적 조절 능력이 형성되는데 외적 동기화는 자율성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Chang (2002)에 의한 성적 자율성 두 가지 측면인 조절능력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육 내용에는 피임, 임신 및 성병 예방, 성교 여부 결정, 원하지 않는 성교 거절, 성욕구 조절, 성 관계로 성과트너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려, 성폭력 대응, 성과 관련된 양성평등 의사 표현, 성교에 관한 명확한 의사표시 등의 조절능력과 임신 및 유산, 성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적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생리적, 심리사회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 전달 뿐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시간으로 5주간 10회에 걸쳐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일회성 교육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여대생들이 토론 시간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성병 에이즈 관

런 기초지식만으로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Liverpool, McGhee, Lollis, Beckford, & Levine, 2002)나, 일회성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결과(Han, 2001) 등을 비교할 때 성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좀 더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실험군 대조군 간의 프로그램 종료 직후와 프로그램 종료 10주 후의 성적 자율성 차이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번 형성된 성적 자율성 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후 프로그램 제공 후에 성적 자율성이 감소하는 시점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함으로써 재교육이나 강화교육을 제공하는 시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여대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서울시내 일개 대학에서 교양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것으로 사회 첫 발을 내 디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여대생이 미처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면하게 될 성적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능력을 기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내 일개 대학의 일부 교양과목 수강하는 학생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여대생의 성지식 및 성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과과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대생의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대학에 속하는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가 교양과목을 통하여 사회 첫 발을 디디는 여대생에게 구조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공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성지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성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교과 내용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제한점과 결과를 통하여 여성건강간호학 전공 교수들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교양과정에 “여성 과 성 건강”과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이성의 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나누고 이들 상호 관계 속에서 성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Barber, B. K., & Schluterman, J. M. (2008). Connectedness in the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call for greater conceptual clar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 209-216.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08.01.012>
- Center for Disease Control. (2010). *Status of HIV/AIDS infection as of December, 2010*. Retrieved April 12, 2012, from [http://www.cdc.gov/kcdc/home/jsp/diseasedic/dic/DISEDIC0001Detail.jsp?menuid=512050&contentid=7667&boardid=null&appid=kcdc/z01&pageNum=null&sub=null&tabinx=1&q\\_had01=A&q\\_had02=2012&idxType=0&idxNum=8](http://www.cdc.gov/kcdc/home/jsp/diseasedic/dic/DISEDIC0001Detail.jsp?menuid=512050&contentid=7667&boardid=null&appid=kcdc/z01&pageNum=null&sub=null&tabinx=1&q_had01=A&q_had02=2012&idxType=0&idxNum=8)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 106-115.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318-330.
- Han, Y. R. (2001). The effects of AIDS education o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467-476.
-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R. (200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267-275.
- Jeon, G.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 45-68.
- Lee, I. S., Jeon, M. Y., Kim, Y. H., & Jung, M. S. (2000). Knowledge in sex and need of sex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 382-395.
- Liverpool, J., McGhee, M., Lollis, C., Beckford, M., & Levine, D. (2002).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of homeless African-American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HIV/AIDS prevention. *Journal of the National Medical Association*, 94, 257-263.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Status of unmarried mother and needs assessment*. Retrieved April 12, 2012,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idx=4192](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idx=419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8). *Revision of women's development act(11th)*. Retrieved February 2, 2012,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3\\_02e.jsp?func=view&idx=3706](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3_02e.jsp?func=view&idx=370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National survey on trends of induced abortion*. Retrieved April, 2012, from <http://www.mohw.go.kr/front/jb/>
- Ott, M. A., Millstein, S. G., Ofner, S., & Halpern-Felsher, B. L. (2006). Greater expectations: Adolescents' positive motivations for sex.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8, 84-89.
- Parkes, A., Henderson, M., Wight, D., & Nixon, C. (2011). Is parenting associated with teenagers' early sexual risk-taking, autonomy and relationship with sexual partner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3, 30-40. <http://dx.doi.org/10.1363/430301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68>
- Shin, Y. H, Chun, Y. K., Cho, S. M., & Cho, Y. R. (2005).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on knowledge related to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304-1313.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et al.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 633-646. <http://dx.doi.org/10.1037/0012-1649.43.3.633>
- Wang, I. M. (2009).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Wight, D., Parkes, A., Strange, V., Allen, E., Bonell, C., & Henderson, M. (2008). The quality of young people's heterosexual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aracteristics shaping subjective experience.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0, 226-237. <http://dx.doi.org/10.1363/402260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Sexual health*. Retrieved October 25, 2010, from [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
- Zimmer-Gembeck, M. J., & Helfand, M. (2008). Ten years of longitudinal research on U.S. adolescent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correlates of sexual intercourse, and the importance of age, gender and ethnic background. *Developmental Review*, 28, 153-224. <http://dx.doi.org/10.1016/j.dr.2007.06.001>

###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Importance of appropriate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especially for female students have been addressed to increase their sexual knowledge and autonomy.

■ **What this paper adds?**

The integrative 5-week (15 hour) sexual education program reflecting control and coping aspects of sexual autonomy was developed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it's effect was analyzed.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ing professors majoring women's health nursing may contribute to improving college students' sexual autonomy by opening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as a general elective curriculum.